

낙후·불균형 덜쳐낼 기회...광주·전남 통합역량 절실

160조 한국판 뉴딜 유치 전쟁 시작

행정통합·군공항 등 갈등 현안

상시 협의 자리 마련하고

지역균형뉴딜 공동 대응 나서야

SOC 혁신 할 '초광역권 구상' 필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들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특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75조원)이 투입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이다. 타 권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광주·전남으로선 지역균형발전 뉴딜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와 함께 지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초광역 차원의 접근 전략과 프로젝트 발굴, 공항·철도 등 기반시설 관련 현안의 대응적인 해결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권 교통·경제·행정 통합 구상을 토대로 한국판 뉴딜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여전히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행정통합 협의 마무리 수순=핵심은 불균형 시정=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역량을 결집해 국가 불균형의 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산업·연구개발 등 전 부문에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뒤지며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대 이슈로 부상한 통합 여부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면밀한 연구용역을 맡겨 통합에 따른 이익 및 불이익 근거, 통합 추진 시 필요한 법·제도, 정부의 지원 사항, 시너지 증진 방안, 추진 체계, 로드맵 등을, 통합 미추진 시 상생협력 방안,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검토한 뒤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통합 논의에 앞서 현재 갈등 양상을 보이던 현안을 거둬들이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상호 존중·이해의 틀 내에서 협의의 자리를 상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이윤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합의문 작성을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약속한 '10월 내 만남'은 불발됐다. 하지만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조만간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만나 행정통합 논의의 밑그림을 발표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철도·공항도로 등 기반시설 혁신할 '초광역권 구상' 필요=한국판 뉴딜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주도와 초광역권 구상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가시티를 추진중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실행 단계에 접어든 대구·경북과는 달리 광주·전남은 행정 통합 사전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 양상만 보였다. 타지역이 초광역권 구상을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 미래 사업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광주·전남의 신청한 제4차 광역교통 계획은 7건 1조 8516억원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교통 접근성이 더 떨어지면서 지역 낙후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광주·전남의 지역 내, 지역 간, 타 지역 및 세계와의 연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광주역을 광주·전남·전북과 광주·전남·대구·경북을 잇는 교통허브 거점이자 환승·복합센터의 역할을 갖게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통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전선의 차질없는 구축은 물론 전라선 KTX 신설, 광주·대구 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광주역 지하화를 통해 지상의 광주역 부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그린·스마트·뉴딜 사업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건립되고 있는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찾아 이윤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해 무안공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현실화시키고 인근에 항공 부품 및 정비 산업을 한국판 뉴딜에 접목시켜 실질적인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 아래 2021년 광주민간공항의 이전 실행과 군공항 이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렛대로 군 공항 이전의 갈등을 풀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까지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여수항 및 여수박람회장의 재개발 사업을 4차 항만개발계획에 포함, 여수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전남 동부권 발전 비전도 나와야 한다. 현재 여수박람회장은 정부의 선 투자 비용 회수 문제 등이 얽혀 재개발이 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양항도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해 다시 미래 비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균형발전' 파격 공약...배경 관심

“본격 대권행보 시동” 해석

수도권 묶인 이재명 전제 시선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호남에서 '균형발전 3대 제안'을 꺼내 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표' 정책으로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풀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란 반응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 지방 채용 확대 및 지방 기업 법인제 전면 구상을 사전 예고 없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시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현행 30%→50%)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낙후지역 이전 기업 차등적 세제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부분 도입 방안을 거론했다.

특히 지방대 출신 우대와 관련해, 확대분은 다른 광역시도의 묶이라며 “가령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분이 (전남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균형발전 구상을 내놓은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가자 정책 경쟁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비전은 경기도에 묶여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공간은 전 지역”이라며 “이 대표가 호남을 시작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걸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 공약을 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도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은 앞으로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이 끌고 나가게 될 핵심 어젠다”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김신조 사건' 후 52년 잠겼던 복악산 철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닫혀있던 복악산 복측 철문을 직접 열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을 하루 앞둔 이날 직접 개방 지역 둘러길을 등반하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터 복악산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철문을 열었다. 이어 청운대 안내소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문화재청장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복악산 개방 준비과정과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운대 쉼터에서 2022년 예정된 복악산 남측면 개방 계획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광주형 3대 뉴딜'·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지원 건의

민주당 광주서 최고위원 회의

광주시장·전남지사 지원 요청

이윤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 '광주형 3대 뉴딜'을,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첫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현장최고위원회'에는 이낙연 대표, 김중만·염태영·신동근·양항자·박홍배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그

린,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을, 김 지사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RE100 전용 시범단지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 12개 현안과 22개 예산지원 사업을 각각 건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짜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광주형 3대 뉴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형 3대 뉴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150만 광주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점이다. 큰 지역의 뉴딜정책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 처리 특별법 마련', '인공지능 디지털 파크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핵심사업으로 '국립 의과대학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 국가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등 지역발전 특별 3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사업으로 117건의 9조 2000억원을 발굴했고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의 대표사업인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선포식'을 12월 대통령이 참석할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민주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